

# 14번홀 환상의 이글 샷... 호랑이 잡았다

양용은 승부처 14번홀



“10년 이내에 메이저 우승이 실현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첫 발을 내디딘 최경주(39·나이키골프)가 이렇게 말했을 때 골프를 안다는 사람들은 모두 반신반의했다. 당시 박지원 문화체육부 장관은 “최경주가 PGA 투어 대회에서 10위 이내만 들어도

## 양용은 회심의 '20m 칩샷' 성공... 우즈 기 꺾어 한국골프 '메이저 도전' 36년만에 정상 꿈 실현

10억원의 골프 육성 지원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오랜 미국 생활을 통해 PGA 투어의 벽이 얼마나 높는지 잘 알고 있었던 박 전 장관은 우승은 커녕 ‘톱10’조차 대단한 성과라고 본 것이었다. 그런 한국 골퍼가 PGA 투어에 본격 진출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메이저 챔피언 배출’이라는 최경주의 예언을 실현했다. 한국 골프 선수의 메이저대회 도전은 36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2년 일본오픈에서 우승했던 한장삼(69)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고문이 1973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마스터스 대회에 출전했다. 또 김승학 전 KPGA 회장이 특별 초청 자격으로 메이저대회에 나갔고 김성운이 1999년 US아마추어선수권대회 준우승자 자격으로 마스터스에 초청된 적이 있다. 그렇지만 한국 선수의 메이저대회 도전은 ‘탱크’ 최경주와 함께 본격화됐다. 최경주는 1999년 4대 메이저 골프 대회인 브리티시오픈에 예선을 거쳐 출전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끊임없이 메이저대회 정상에 도전했다. 1999년 브리티시오픈에서 공동 49위를 차지했던 최경주는 2004년 마스터스에서는 3위에 오르면서 메이저리그 정상 문턱까지 도달했으나 마지막 남은 벽을 넘지 못했다. 2007년 브리티시오픈에서 공동 8위에 오른 것이 최경주가 최근 메이저대회에서 거둔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야생마’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은 2005년 US오픈과 브리티시오픈에 참가했지만 컷 탈락했고 그해 PGA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47위를 기록했다. 이후 메이저대회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양용은은 17일 막을 내린 PGA 챔피언십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하면서 한국인 메이저대회 도전사에 커다란 족적을 찍었다. 이밖에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 등 코리아 브러더스들도 끊임없이 메이저 대회 정상을 노려왔다. /연합뉴스

### ■ '제주 야생마' 양용은은

‘제주 야생마’ 양용은은 골프장 볼보이에서 시작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꺾고 메이저골프대회 PGA챔피언십을 제패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72년 제주에서 태어난 양용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활비를 벌고자 친구 소개로 제주시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공 잡는 일을 하며 골퍼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1991년 제대 뒤 제주도 오라골프장 연습장에서 하드렛일을 하면서 오라골프장을 찾은 프로 선수들의 골프 동작을 눈으로 익히며 본격적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양용은은 2002년 SBS 최강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국내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2003년 일본 프로골프 퀘리파이닝스쿨에 수석 합격한 양용은은 2004년 2승 등 통산 4승

## 연습장서 '볼 보이'하다 골프 인연 황제 우즈 꺾고 세계 정상에 우뚝

을 거두며 일본 무대에서도 승승장구했다. 일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양용은은 이번에는 세계의 문을 두드렸고 2006년 11월 유럽 프로골프투어 HSBC 챔피언십에서 타이거 우즈를 꺾고 우승하면서 화려한 조명을 받았다. 당시 6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타이거 우즈의 7연승을 저지했다는 의미에서 ‘호랑이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화려하게 세계 골프계에 등장했지만 그 해 12월에 열린 PGA퀘리파이닝 스쿨에서 스코어 카드 오기로 실격하며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하지만 거진 삶을 살아온 ‘제주 야생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양용은은 2007년 ‘2전3기’ 끝에 PGA 퀘리파이닝 스쿨을 통과했지만 성적 부진으로 2008년 예선으로 밀려난 끝에 2009년에야 다시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퀘리파이닝스쿨 성적이 좋지 않아 대기 선수로 있다가 출전 기회를 얻은 양용은은 지난 3월 열린 PGA 투어 혼다클래식을 제패하며 2006년 HSBC 챔피언십 제패 이후 28개월 만에 다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양용은은 골프 황제를 넘어 세계 정상에 오르면서 이전 대기자의 설움도, ‘나는 안된다’는 눈총도 받지 않고 골프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 ■ 당당한 양용은

## 편안하게 경기했고 우승은 백의민족의 힘

“최종 라운드의 의상 콘셉트는 백의민족이었죠” 17일(한국시간) 아시아 남자로서는 최초로 메이저골프대회 PGA챔피언십을 제패한 양용은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접전을 끝낸 뒤 비로소 여유를 찾았다. 다음은 양용은과 일문일답. -4번홀(파4) 이글로 승기를 잡았는데. ▲우즈가 첫번째 샷을 범커에 빠뜨렸지만 두번째 샷으로 버디 기회를 만들었다. 나도 기회가 있었기에 바짝 붙인다는 생각으로 52도 웨지로 칩샷을 했는데 들어가 버렸다. -오늘 가장 큰 고비가 있었다면. ▲편안하게 경기를 했기에 큰 고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굳이 고비를 꼽자고 한다면 11번홀 (파5)이었다. 나는 세번만에 그린 위에 볼을 올렸는데 우즈는 두번만에 볼을 올렸고 가볍게 버디를 잡았다. 그 순간 나와 우즈가 다른 점이라고 생각했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우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언제 들었는가. ▲18번홀(파4) 그린 위에 올라갈 때까지 우승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비록 우즈가 두번째 샷을 그린 옆 러프에 빠뜨렸지만 그런 곳에서도 칩샷으로 버디를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우즈다. 마지막 홀 버디 퍼트가 들어갈 때까지 우승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연합뉴스



### ■ 고개속인 우즈

## 양용은 아주 멋졌고 난 퍼트가 안좋았다

“양용은은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쳤지만 나는 퍼트 감각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17일(한국시간) 끝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메이저대회인 PGA챔피언십에서 양용은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메이저대회에서 처음으로 역전패를 당한 우즈는 “오늘 나도 잘 쳤지만 양용은은 대단했다”며 “그는 17번 홀 보기 실수를 빼면 오늘 한 샷도 놓치지 않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3라운드까지 2타차로 선두를 달리던 우즈는 4라운드에서 3오버파 75타를 치면서 양용은에 최종 합계 3타차로 역전패했다. 우즈는 “재미있는 경기였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14번의 메이저대회 챔피언이 됐을 때처럼 퍼트가 되지 않았다”며 승리를 놓친 것을 끝내 아쉬워했다. 우즈는 “오늘 티샷과 아이언샷도 괜찮았다”며 “공을 홀에 넣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잘됐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양용은의 PGA챔피언십 우승을 올해 메이저대회에서 가장 큰 이변이었다며 우즈는 지금까지 메이저대회에서 4라운드를 선두로 시작했을 때는 한 번도 패하지 않고 14승을 올렸다고 전했다. 우즈는 “아시아 선수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며 양용은의 우승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호랑이 앞 포효

‘제주 야생마’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17일(한국시간)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 골프 대회(PGA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뒤 포효하고 있다. 반면 2타 앞선채 최종라운드를 맞이했다 결국 3타차로 역전을 허용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는 아쉬움에 고개를 떨구고 있다. /연합뉴스